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으로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행정력 집중 · 지역 시민 · 예술인과 적극 소통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이 전시와 공연, 예술교육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미술관 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기획전시뿐 아니라 지역예술인과 전공생들의 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20여회의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시민, 예술인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문화도시 익산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올해 시민들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해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재도전에 나선다.

우선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전시와 우수 전시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지역 미술인과 상생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특히 지역의 미술관련 협회와 단체의 초청 전시회를 기획하고 지역 기반의 민간단체와 협력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장품 DB와 등 권리와 정비도 체계화해 기획전시에 활용한다.

이러 미술관 특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시행해 나갈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미술관 운영을 통해 공립미술관 인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익산예술의전당 전경.

으로 전당과 미술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나아가 문화예술도시 익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

전당은 그동안 해마다 우수 작가 작품을 기획 전시해 왔다. 올해는 이달 기획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전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를 시작으로 5월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인 '테리보더의 먹고 즐기고 사랑하러展', 7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어린이를 위한 전시, 9월에는 지역의 청년 작가 발굴을 위한 작품 교류 전시를 각각 기획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예술 교육도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서양화와 전통 회화는 물론 성인을 위한 목공예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조형 프

로그램 등이 실시된다. 지역 국비를 확보해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강좌로 수강생과 학부모의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한여름 밤 미술관에서 전시와 함께 재즈 연주와 토크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획전시를 실시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립미술관 인증을 획득해 문화예술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명작 스페셜 10' 공연

25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정기연주회

다가오는 봄을 맞아 군산시는 시민들이 코로 나로 지친 마음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봄에 어울리는 클래식 연주회를 개최한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음악으로 시민들이 따뜻하고 밝은 봄을 품위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클래식 대가들의 명곡들을 선정해 오는 25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40회 정기연주회 '명작 스페셜 10'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정현의 지휘로 명품클래식의 대표작인 베토벤 삼중협주곡 다장조 56번과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연주한다. 이날 무대에는 서울시향 부악장이며 청중을 사로잡는 정열적이면서 완숙한 연주

'바이올린 웨인 린', 완벽한 테크닉과 서정적 이면서 우아한 연주 '젤로 허셜', 예민하고 감각적인 터치, 유연한 음악성으로 국제무대에서 각광 받는 '피아노 윤서영'이 함께 무대를 장식한다.

황은미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이변 명작 스페셜 10을 통해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 지는거 같아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예술단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진안군과 대동사상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죽도와 정여립의 대동사상' 세미나가 지난 5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죽도와 정여립의 대동사상' 세미나 개최

진안군, 정여립 대동사상 담긴 죽도 · 천반산 관광화 추진

진안군과 대동사상기념사업회(이사장 신정일)가 공동으로 개최한 '죽도와 정여립의 대동사상' 세미나가 지난 5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고, 진안군 향토사 관계자 및 동래 정씨 문중으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조용현 건국대 교수와 최영기 전주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발표자들과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김일용 전북일보 기자, 서수권 전주방송 피디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주제 발표를 통해 신정일 이사장은 죽도와 천반산 일원의 명승화를 진안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최영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정여립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기

존의 진안군 관광 명소와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의 구성안을 제시했다. 특히, 진안은 정여립과 관련한 일화와 명소가 많은 곳으로, 정여립 연구와 더불어 죽도와 천반산 등을 관광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정여립이 주창한 대동사상은 근대의 공화주의와 유사하여, 정여립을 최초의 공화주의자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최근, 이런 점이 부각되어 정여립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안의 향토사 역시 이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안군과 대동사상기념사업회가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세미나가 정여립 선생과 진안의 역사적 관련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죽도와 천반산 관광화 방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유대만 기자

군산대학교 박물관, '군산에 군산을 더하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공모 선정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산지역의 중요 유물들을 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할 예정이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대학박물관II'를 대주제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대학박물관의 문화·연구자원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전시 분야에 '군산에 군산을 더하다'를 주제로 공모했고, 2,3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박물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립박물관 등 유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계하여,



군산지역의 중요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를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정기문 박물관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군산을 주제로 특성화된 전시 구성을 기획 중이다"

면서 "이번 사업 선정이 대학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